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 † 오늘의 전례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25-37 참조)

우리 주변에는 이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단 몇 사람에게라도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의 힘이라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빈센트 반 고흐,  
크뤼렐러 밀러 박물관(네덜란드)

**제1독서** 신명 30,10-14

**제2독서** 콜로 1,15-20

**복음** 루카 10,25-37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흠족하리이다.

**화답송**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이웃’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정항래 시몬 신부 | 교구 교정사목담당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2011년, 우리는 교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새 시대의 복음화’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주님의 모습을 보지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이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었고, 우리 모든 교구민들은 그 부르심에 기꺼이 실천하는 삶으로 응답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웃’의 사전적 의미는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킵니다. ‘이웃’의 복음적 의미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이웃’은 ‘가까이 가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 “그를 보고서는, 그에게 다가가, 돌보아 주었다.”

강도 만난 이를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돌보아준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아니었지만, 그는 ‘가까이 다가감’으로서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되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은 가까이 다

가감에서 시작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야지만 서로 ‘이웃’이 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 교정(矯正), ‘뒤틀린 것을 바로잡다.’

오늘날, 마음과 삶을 나눌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는 양심이 뒤틀리고, 마음이 뒤틀리고, 가정생활이 뒤틀리고, 사회생활이 뒤틀리고, 관계가 뒤틀린 이들로 인해 점점 각박하고 차가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정사목은 이렇게 ‘뒤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웃’에 대한 ‘이웃’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회개하는 ‘이웃’의 죄까지도 은총으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기에, 그 ‘이웃’의 죄로 인해 깊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이웃’의 상처를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믿기에,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하느님의 지혜를 간절히 청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누구라도 먼저 ‘다가가야’ 서로 ‘이웃’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먼저 ‘다가가면’ 서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지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이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교정사목과 함께 ‘이웃’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



## 신앙의 해 교리 퀴즈 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과 직분들이 있어 각각 고유한 은총을 받아 머리가신 주님께 봉사합니다. 사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1코린 12,4)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둘 다 성사의 은총을 통해 주님께 받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 평신도 사도직



문화홍보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들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입니다. 공의회가 반포한 문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현장, 즉 계시현장, 전례현장, 교회현장, 그리고 사목현장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9개의 교령과 3개의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입니다.

### 교회 전체에 주어진 직무

사도직은 '사도로서의 직무'라는 뜻인데, 그 표현 안에는 이것이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상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파견되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 직무를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교회현장 1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 직무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직무이고 우리 또한 주님의 파견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사도직'이라 불립니다.

### 성화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파스카 신비에 결합되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며(사도 2,42-47 참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로마 12,1 참조),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1베드 3,15 참조)”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에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 우리 집안에, 학교에, 회사에 주님 오시도록

공의회는 평신도 사도직이 결코 수동적으로 순종만 잘 하면 되는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직무인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함께 하는 사도직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이나 장터에도 예수님께서 현존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특히 파견된 이들이 바로 평신도라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한 조직이나 운동에 가입하기 이전에, 세속 사람들과 꼭 같이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일터와 가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 자체가 이미 사도직인 것입니다. 이 일은 하면 좋고 못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파견에 의해 발생하는 거룩한 직책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 )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 )들이라고 부른다.”  
(가톨릭교회교리서 934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제!”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주교대리

금년 2월에 중남미에 있는 파나마를 여행한 적이 있다. 행복지수 1위 나라로 신문에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행복지수는 결코 소득이나 경제력이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가진 것과 상관없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해인 수녀님께서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를 신문에 발표하셨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해인 수녀님께서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행복의 비결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데 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나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눈도 열리고 생각도 바뀐다. 그러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나 자신도 다르게 보인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외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제!’

그런데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있다. 아파트 문화가 끼친 영향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자꾸만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이기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집 문을 모두 닫아걸고 살고 있다. 자기 집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문까지도 닫고 살게 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까지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반모임이나 소공동체 모임이 잘 안 된다. 소공동체를 집에서 하는 중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웃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啓示宗教(계시종교)이다. ‘啓示’라는 말은 열어 보여준다는 말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 자신을 다 열어 보여 주시면서 다 내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계시어로 초대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닫힌 삶’이 아니라 ‘열린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모두 닫힌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 주일 미사를 쫓아거나 간음이나 도둑질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예수님을 또다시 마구간으로 밀어 내면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요한 1,10-11) 문을 열자. 아파트 문을 열자. 그러면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리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이웃과 함께 무한한 행복을 한 아름 안고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나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제!” **궤장**



## 젊은이, 빌려주는 거야

“가진 돈… 돈 있는 대로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어.”

소리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재빠른 동작으로 침입한 도둑은 이내 주인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 날 죽이지 않을 거요?” 순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도둑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색 마스크 위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선량해 보였습니다. 주인은 긴장된 마음을 애써 태연한 척 억누르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젊은이, 언제부터 이랬나.” “늙은이가 말이 많아. 이상한 소리 말고 돈이나 꺼내!” 그는 칼을 주인의 얼굴에 거의 닿을 정도로 들이댈었습니다. “이 영감탱이… 빨리 돈 내놔!” 그의 목소리는 더 격양돼 있었지만 웬지 모르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돈 줄게. 자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우리 타협하세.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빌려주는 것이면 어떻겠나?” 그의 동공이 커지는 것으로 보아 주인의 말에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보이냐? 만약 이번이 처음이라면 자네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잖아.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지금 죽어도 별 후회가 없지만 자네는 너무 아까워. 내가 양보할 테니 빌려주는 것으로 하세.” 갑자기 도둑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 내렸습니다.

“에이 씨 못해 먹겠네.” 그는 마스크를 벗더니 주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주인도 목이 메여 그의 등을 다독여줬습니다. “…제 어머니가 혈액투석 중이신데 병원비가 너무 밀려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은 장롱문을 열어 깊은 곳에서 금반지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주 등록금에 보태주려고 찾아두었던 돈을 그의 무릎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내가 약속하지 않았나, 빌려주겠다고.” “됐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주인은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도둑이 되는 거야. 나는 도둑에게 이 돈을 빼앗긴 게 아니라 앞길 창창한 청년에게 빌려주는 것이라네. 나중에 값이면 돼.” 그는 돈과 패물을 받아들고 성실하게 벌어서 번득이 빛을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로등 불빛 사이로 사라져 갔습니다. **김민**

### 금주의 성인



#### 성 아폴리나리스(7월 20일)

초대 교회의 순교자 중 한 분인 아폴리나리스 성인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제자로서 이탈리아 라벤나로 파견되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전해진다. 여러 기적과 설교로 많은 이들을 개종시키며 전교활동을 펼치신 성인께서는 박해가 일어나자 붙잡혀 혹독한 폭행을 당한 뒤 추방되었으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선종하셨다. 성인께서는 라벤나의 초대 주교이자 첫 번째 순교자로 공경 받고 있다.



### ■ 나가사키대교구 교구장 타카미 대주교 대구대교구 방문



일본 나가사키대교구 교구장 타카미 미츠아키 대주교님과 방문단 13명은 7월 7일(일)부터 9일(화)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대구대교구를 방문하셨다.

사진제공: 가톨릭신문

### ■ 천주교 대구대교구 성지안내봉사자회 제1기, 2기 수료식 및 감사미사



교구 성지안내봉사자회(회장 : 조철래 유스티노, 담당 : 서준홍 마티아 신부) 제1기, 2기 수료식 및 감사미사가 7월 5일(금) 오후 6시 30분 꾸르실료 교육관 내 성당에서 교구 성지안내봉사자회 담당 서준홍(마티아) 신부님과 교구 사목국장 박영일(바오로)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서준홍 신부님은 “앞으로 성지안내 봉사자로 활동할 때 만나는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자기 나름의 봉사기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20주 동안 교육을 받은 제1기 16명, 제2기 2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동할 때 만나는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자기 나름의 봉사기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20주 동안 교육을 받은 제1기 16명, 제2기 2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기사 및 사진제공: 월간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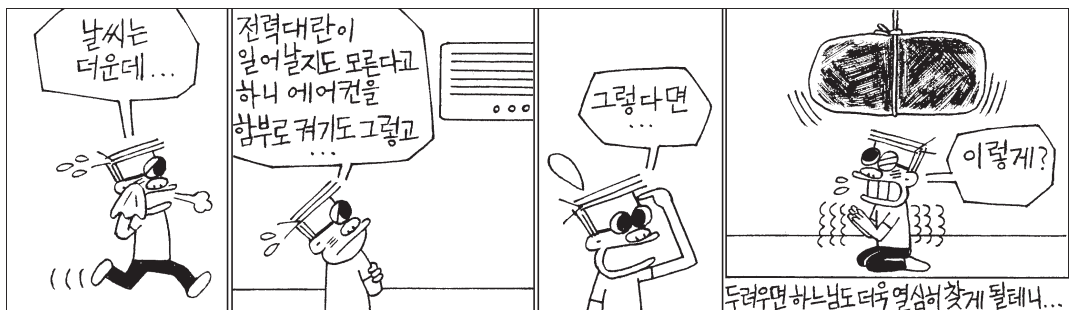


###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13주일(6월 30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⑩ 정답은 <하느님의 어린양>입니다.  
당첨자 : 문현정(마르타, 계산), 김인주(에디타, 고령), 김태선(세실리아, 평리),  
김경자(수산나, 봉덕), 박복수(젼마, 성동)

### 그리스도교적(?) 피서법

박성규 엘리지오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1~중2: 8.5(월)~7(수)  
 중3~중2: 8.7(수)~9(금)  
 장소: 마산 가톨릭교육관  
 고3·대학·일반: 8.12(월)~14(수)  
 장소: 한티 피정의 집  
 ※ 중1~중2는 등록생 중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신청: 각 본당 사무실, 마감 7.21(일)

**7월 가나강좌 안내**

일시: 7.21(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 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행사 | 모임**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7.15(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교육 | 모집**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ME 312차: 8.2(금)~4(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문의: 대구ME, 983-0521  
 교원들을 위한 에듀힐링 신청 환영

**초등학생 편편볼런티어 2기 모집**

기간: 8.2~16 (매주 금요일)  
 9:30~12:30 / 총4회 12시간  
 내용: 초등학생 자원봉사프로그램  
 대상: 초3~6학년, 회비: 5천 원  
 문의: 1대리구청, 426-7212

**가톨릭 한중(韓中)친선협회 회원 모집**

대상: 중국어 초급정도의 모든신자  
 내용: 매달 친교모임 및 소공동체  
 중국어(성경반, 회화반, 전례반)  
 중국(비즈니스반, 문화교류반 등)  
 문의: (011)808-8018

**기분좋은 대화, 행복한 삶 강좌(4회)**

기간: 7.17(수)~18(목) / 7.23(화)~24(수)  
 시간: 14:00~16:00 / 19:00~21:00  
 장소: 프란치스카눔, 비용: 10만 원  
 대상: 의사소통을 원하는 모든이  
 문의: 황광우(요셉) 신부, (010)3762-1670

**Show Bible : 아브라함**

**성경 속 인물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기간: 7.20~8.17(매주 토) 14:00~16:00  
 장소: 바오로딸 서원(청년: 2만 원)  
 문의: 양채사리아 수녀, (010)2503-5185

**성체 신심 세미나**

기간: 8.16(금)~18(일), 한티피정의집  
 내용: 성체현시, 성체조배, 강의,  
 참회예절, 면담성사, 안수  
 문의: (010)5493-1819

**가르멜 기도 학교**

기간: 7.27(토)~28(일)  
 날짜: 매월 마지막 주 1박 2일  
 장소: 마산 가르멜 피정의 집  
 대상: 고등·대학·일반(선착순 20명)  
 문의: (010)4650-4628, 회비: 4만 5천

**젊은이 슈발리에 축제**

기간: 8.9(금)~11(일), 접수시작: 7.22(월)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본원  
 대상: 34세 미만 미혼 남녀(6만 원)  
 문의: (010)6258-6955(남)  
 (010)9330-3104(여)

**채용 | 안내**

**범어성당 여사무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자격: PC가능자, 마감: 7.21(일)  
 문의: 744-1394

**한티순교성지 직원 채용**

업무: 사무, 기획  
 서류: 이력서, 자필자기소개서, 교적  
 마감: 8.3(토)까지 직접 방문  
 문의: 성지사무실, (054)975-5151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준호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뜰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가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 · 치매 조기진단
- MRI, CT, 위/대장 내시경
- 건강보험검진, 공무원종합검진

대표전화 053) 652-2525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주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남고개에 위치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세요!

**백내장수술은 사랑입니다.**

의박사  
 현.연세대의학교수 원장 박종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053.626-8881-5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